

## 발간사

한국처럼 변화가 무상한 나라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오로지 한길을 걸어 올해로 5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숱한 단체들이 생겨나자마자 곧 스러져 역사의 숲으로 사라진 데 반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야말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목탁'인 신문이 제자리를 지켜왔듯이 올곧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전, 우리 선배 언론인들이 신문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무관의 제왕'인 언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감시하고 다짐하기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립 이후 세계의 우수 언론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언론단체'로 평가받기도 했고 나아가 세계 언론인들에게 그 '운영의 묘'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래 주어진 중재와 조정 기능을 법률기구에 넘겨줌으로써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 없는 단체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한때는 그 존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잘 견딘다'고 우리 위원회는 선배 언론인들이 심어 놓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수호한다'는 정신을 밑거름으로 간난의 어려움을 뚫고 오늘 반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위원회의 기간단체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



음을 밝혀 둡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회의 역대 윤리위원장님과 윤리위원님 및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노고는 붓으로 다 전하지 못할 만큼 무겁고 큼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소프트웨어를 채워온 역대 심의실 심의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들의 노력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우리의 궤적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 본래 의도한 대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먼 훗날 학자들이 '한국언론사'를 논할 때, 그 사료가 되도록 가능한 한 역사적 자료들을 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질정을 통해 앞으로 더 채워지기를 기약하면서 '여백의 미'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 협력해 주신 한국신문협회 산하 회원사들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유관 언론단체와 기업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1년 9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김대성